



미(美)·감(感)·쾌(快)·청(靑)
어메니티(Amenity) 서천의 경제중심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인

기벌포문화의 중심지역 장항

한상욱 · 조봉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외치는 군민 및 충남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천군이다.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산부터 바다까지 자연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서천군은 2003년부터 '어메니티 서천만들기'를 추진하여 '어메니티' 하면 '서천'을 떠올릴 만큼 확실히 지역의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서천은 장항재련소와 장항신 등을 기반으로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게 되었고 이후 성장이 약속된 듯 있었으나, 산업의 쇠퇴와 경부축의 교통여건 향상 등과 더불어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지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감소할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여 만든 것이 바로 '어메니티 서천만들기'이다. 이것은 서천군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부각시켜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어메니티 서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벌포문화의 장항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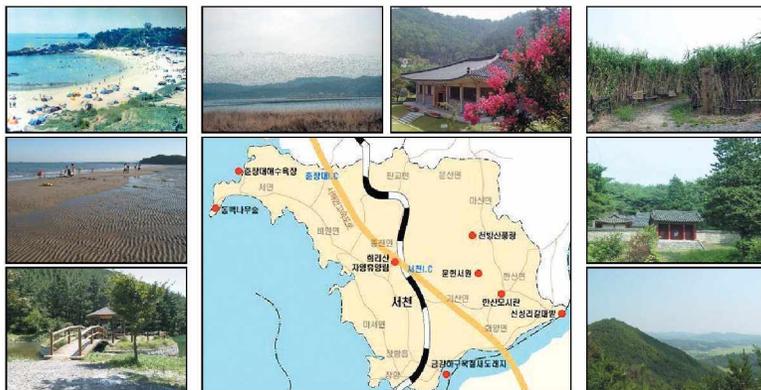
서천군의 일반현황

■ 자연환경

서천군은 우리나라 서해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최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차령산맥이 충남의 중앙을 지나 서천군까지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이 서천에서 서해와 만나고,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충적평야를 형성하여 내포(內浦)평야와 호남평야가 연결되는 광활한 옥토를 이루고 있다. 서쪽과 남쪽의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과 모래사장이 발달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관광자원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를 비롯한 홍원항 전어 큰 잔치, 동백꽃·주꾸미 축제, 마량포 해돋이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천새의 낙원인 금강하구둑, 영화 JSA(공농경비구역)의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신성리 갈대밭, 바다의 생명인 갯벌과 완만한 경사면에 아카시아와 해송림이 우기진 춘장대해수욕장 등 연인과 가족의 휴양지로, 갯벌 체험을 중심으로 농촌생활 체험 등 체험관광지로 다양한 테마관광이 군내에 활성화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서천 8경

충남의 도시7_ 서천군



서천군 관광안내도

■ 역사와 문화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며 성리학의 대가인 박은 이색을 비롯하여 종교가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월남 이상재 선생 등 역사적 인물을 많이 배출한 충전의 고장이며, 백제의 군사·경제적 요충지였던 기벌포(장항의 옛 지명)문화권인 서천지역은 1,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변히 이어져 오는 백제의 향기가 있다. 서천 특산품으로 유명한 한산세보시와 한산소곡주, 보물60호로 지정된 비인오층석탑과 충남부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저산팔음길쌈틀이는 백제시대부터 이어 온 서천지역 고유의 생활문화로 지역민은 물론 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이다.



비인5층석탑



신송리 곰솔



가정목은선생문집판



한산세모시짜기

서산의 문화자원

■ 행정현황

서천군은 급강의 하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2개의 읍(장항, 서천)과 11개의 면(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분산, 관교, 종천, 비인, 서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항읍은 서천군(舒川郡)의 남쪽이 되므로 남부면(南部面)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서부면(西部面)의 19개 동리를 합해 서부면과 남부면의 이름을 따서 서남면(西南面)이라 하고 1929년 간척지 개발, 1931년 장항선(長項線) 개통, 1937년 장항항(長項港)이 완성되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1939년 10월 1일에 장항읍이 되었다.

긴 목에 읍이 생겼다 해서 장항(長項)이라 부른다. 집성부락으로는 김해김씨(金海金氏), 추계추씨(秋溪秋氏), 온양방씨(溫陽方氏), 용궁전씨(龍宮全氏),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있다.

현재 인구는 62,784명으로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노령인구(65세 이상)가 14,975명으로 26%에 육박하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지 오래이다. 장항읍은 16.8%로 산업지역이고, 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노령인구비율이 적으나 14%이상으로 고령사회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천군의 토지는 총 357,86km로 경작지가 40%, 임야가 42%이며, 시가지는 4~5%에 불과하다. 해안선은 74.2km이며, 유인도가 1개, 무인도가 13개로 14개의 도서들을 갖고 있다. 장항읍은 18.7km로 남측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와 접하고 있다.

충남의 도시7_ 서천군



행정구역과 위성사진

■ 지역경제

장항읍은 서천군청이 위치한 서천읍과 비슷한 규모로서 사실상 서천군의 중심지역이 장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이 서천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어메니티 서천'을 만들어가는 서천군이지만, 그 기반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징항국가산업단지의 건설 및 육성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21C 환황해권 동북아 불류 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서천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서천 IC, 춘장대 IC), 장항신 철도 복선화 추진, 현재 공사중인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징항항 확장 등 SOC 확충사업과 징항국가산업단지 건설 등 환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장항읍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다. 기타 산업으로는 한솔제지, LG Nikko 동제련, LG산전 및 풍농 장항공장이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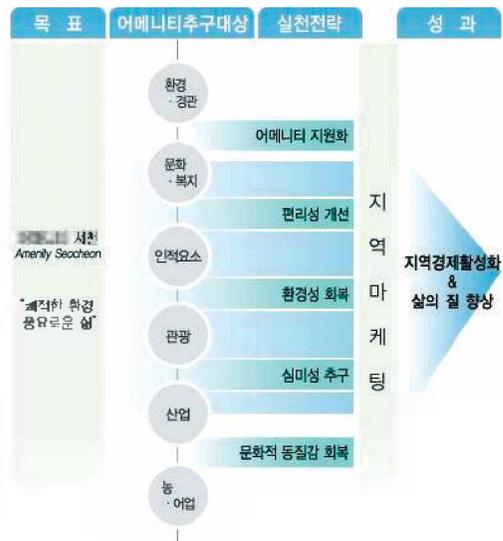
서천군의 서부지역은 72.5km에 걸쳐 서해안과 접하여 5,000여ha에 이르는 천혜의 양식지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김이 생산되어 부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메니티 서천”의 추진전략

서천은 자연적·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관리하고 지역개발로 인한 자연과 문화의 훼손을 방지하며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메니티 서천”의 추진전략



어메니티 서천 추진방향

이를 위해 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뜻하는 미(美), 정감 있고 따뜻한 사람을 뜻하는 감(感), 쾌적한 서천의 새모습을 뜻하는 쾌(快), 약속하는 서천의 미래를 뜻하는 청(靑)을 키워드(key word)로 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정감어린 사람들, 쾌적한 환경과 약속하는 미래가 있는 곳, 어메니티가 실현되는 푸른 미래가 있는 젊은 서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 추진과제

• Discover Amenity 메신저 사업

어메니티 개념을 서천 농수산업의 발전전략으로 가져감으로써 서천 농수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메신저(어메니티 이미지에 부합되는 사회서명인사 또는 연예인) 및 스폰서를 섭외하여 농촌 어메니티 심포지엄 등을 실시하여 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 Amenity Rice상 제정

대한민국과 서천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쌀의 고품질 개발 및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어메니티 Rice상(어메니티 Rice 연구상, 어메니티 Rice 유통인상)을 제정 운영하여 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쌀 품질 관련 연구논문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한 신품종을 개발한 사 및 유통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등 세계적인 쌀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Amenity 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 고유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농촌다움'의 어메니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인 어메니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환경농업의 실천,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전략으로 관주도형이 아닌 각 마을 주민의 참여와 협조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참여한 창의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서천 Amenity 포럼

서천군이 균형비전으로 추진해나갈 어메니티 서천 개념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어메니티 실천의 부분별 실천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주민교육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추진 역량을 배양하여 어메니티 실천 지도자 육성과 함께 온라인 어메니티 포럼을 구축하여 어메니티에 대한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 Amerity 친환경농업관(서천쌀문화센터) 건립

농업이 주를 이루는 郡으로서 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전통 주식인 쌀을 주제로 한 체험과 관광, 판매 등을 통하여 쌀 소비촉진, 쌀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전국 최초로 쌀을 테마로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벤처 농업육성 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Amerity 레스토랑 오픈

군내 친환경 농수산물 전문식당 '어메니티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이의 명소화를 통해 서천 친환경 농수산물 수요 창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Amerity 문화·복지 Complex 건립

도심지의 새로운 상징적인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문화복지가 복합화된 시설물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군 소재지 시천읍 중앙에 위치한 서천시장의 이전하고 군 중심부의 여유공간을 군민들이 여유롭게 문화복지 Complex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천군에서는 환경보전 및 경관형성의 개선을 위한 「자연생관소재 제정」, 바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갯벌 보전 종합프로그램 수립」, 서천 친환경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어메니티 팜」, 미항(美港)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인 「경관형성형 연안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어메니티서천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항소도음 육성사업” 본격 추진

서천군은 장항의 옛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년전부터 장항소도음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으며, 2005년 행정자치부와의 협약을 통해 총 242.8억원(행정자치부 100억원 지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사업, 중심시가지 리노베이션 사업, 송림지구 어매니티 창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도음육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 정립과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신산업·문화관광 등 발전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협약에 의해 추진된다.

■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사업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특화 및 클러스터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의 단순판매에서부터 가공식품개발, 유통 및 마케팅까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장항만전을 도모하고, 여기서 형성된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어민 역량강화 및 리더 육성사업과 장항 브랜드 개관·관리 및 마케팅 다양화 사업 및 수산물·건어물 명품화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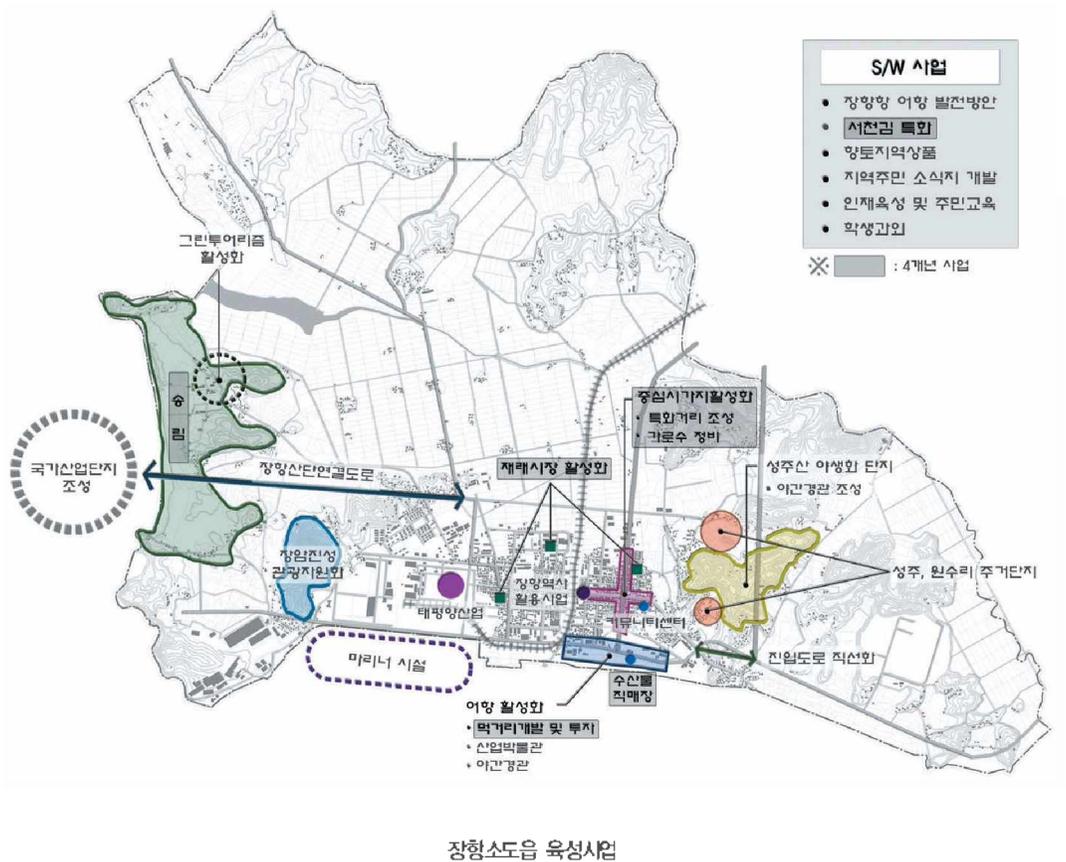
■ 중심시가지 리노베이션 사업

중심시가지 리노베이션 사업은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상점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확대와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점포 등을 활용하여 활력기점으로 재생하고,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포를 육성하여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자 육성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더불어 쾌적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 송림지구 아메니티 창출 사업

송림지구 아메니티 창출 사업은 송림보선 및 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장항읍 중심시가지와 연계된 통한 지역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참여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매력있는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충청남도의 지리적 특성상 북동부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산업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축의 교통망 확충 등으로 성장하거나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남부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쇠퇴와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금강권을 중심으로 광역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에서는 12개 중점진흥지구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항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항지구는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자동차부품전문산업단지 건설과 장항 친수공간 조성 및 산업과 관광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려 한다.



1경(송림)



2경(매바위섬)



3경(뽕에슬제)



4경(아소래섬)

환경친화적 호안도로 건설



5경(슬리첸)

6경(바다)

7경(Rack Art)

8경(천년의 빛)

환경친화적 호안도로 건설

맺음말

서천군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벌포문화'라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장항이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 뒤편에는 낙후지역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 지역이다.

도시가 자족적 성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쇠퇴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서천군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관광지로 개발하고 육성한다고 해도 그 밑바탕에는 경제기반이 깔려져야 한다. 특히 서천의 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의 쇠퇴가 가속되었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건설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 서천군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낙후지역이 아닌 살기 좋은 아니 살고 싶은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의자왕 때에 좌평 성충이 "외국군대가 바다로 침입할 때는 수군이 기벌포 연안에서 막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국방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장항은 이제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교류거점지역이면서 서해로부터 충남으로의, 아니 국가행정의 중심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